

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고린도전서 13:1~13
일시	2018년 01월 21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1~13)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파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요약 자료♣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1-13)

1.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 1)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 2) 남녀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 3) 친구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 1)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 2)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 3)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3.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1-13)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먼저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메시지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참 엘리트(Elite)'가 어떤 사람이 엘리트(Elite)인가? 특히 우리 램넌트들은 잘 귀를 기울여서 말씀

을 듣기를 바란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엘리트(Elite)가 아니다. 톱(Top)을 달리는 사람이 엘리트(Elite)가 아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스턴(Boston) RUTC 학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은 하버드(Harvard)를 비롯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그런 아이비리그(Ivy League)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엘리트(Elite)들이 다 모여진... 지성인들의 집합체가 바로 보스턴(Boston)이었다. 그 곳에서 램넌트들을 지도하는 교수님과의 얘기에서 나온 이야기이었던. 진짜 엘리트(Elite)는 공부를 잘 하는게 엘리트(Elite)가 아니란다. 진짜 엘리트(Elite)는 톱(Top)을 달리는게 엘리트(Elite)가 아니란다. "진짜 엘리트(Elite)는 '영적인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엘리트(Elite)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분명한 답'이 없으면 엘리트(Elite)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엘리트(Elite)들이 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문제도 많다. 그 많은 엘리트(Elite)들이 살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지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지식'과 '지혜'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던 한 엘리트(Elite)가 하나 있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지만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건 '돈'과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인 것을 알았다. 그 배경에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 근데 세상의 '지식'과 '종교',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사도바울이 알게 됐다. 오늘 엘리트(Elite)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램넌트들과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엘리트(Elite)만 가지고 있어야 될 답이 아니고 구원 받은 성도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개인적인 답'이다. 그 답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사도바울이 외친 메시지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다시 말하면 엘리트(Elite)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비밀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쳤다.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다. 진짜 엘리트(Elite)는 뭐냐? '십자가의 도'와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 엘리트(Elite)다. 세상의 지식이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공부는 최선을 다 하되 그게 전부 아니냐. 성도나 램넌트에게 최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참 엘리트(Elite)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참 엘리트(Elite)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참 엘리트(Elite)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분이였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한 '영적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답을 지난 첫 췌주에 말씀을 통해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뭐라 그러냐?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라는 말은 보통 축복 된 말이 아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바로 거룩하게 된 '성도', '성전'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는지

아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다. 그 성령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깨우쳐 준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그냥 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소중한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성도를 대할 때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된다. 한 성도,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2, 3주 전에 펜스테이트(Penn State)에서 역시... 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님이 오셨지 않은가? 그 분은 한... 20년 동안 지금 대학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 분이 식사 하면서... 또 나누면서 한 얘기였었다. “이 땅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페스티벌(Festival)... 잔치가 벌어졌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잔치가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가치를 깨달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가치와 함께 주어진 ‘직분의 가치’이다. 세상이 말하는 ‘명예’나 ‘지식’이 아니다. 구원 다음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여러분... 성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직의 가치’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바로 ‘성도의 가치’이다. 그리고 ‘직분의 가치’이다. 그러면 직분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그러셨다. “지혜와 ‘진실함’을 간구하라.”고 하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누어 줄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진실함을 구하라.”고 하셨다. 특히 지난 어제와 그제께 제직 수련회를 했다. 어스틴(Austin)에서 사역 하시는 김태성 목사님을 모시고 진짜 직분과 그 가치를 알게 됐다. 그 축복과 직분의 가치에 모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에 있는 사람들이다. “강단 목회자의 ‘보호자’로 서라.” “강단 목회자의 ‘식주인’으로 서라.” “강단 목회자의 ‘동역자’로 서라.” “바로 그것이 ‘직분자의 가치’다.”라고 그랬다. 결국은... 결국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23절에 대표적인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직분의 가치’이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축복의 가치인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에서 증거 해 주고 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소리가 들렸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사역 했던 사역자들을 따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쟁만 일어날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심지어는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필터링(Filtering)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대로 그 우상의 재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채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심지어는 일꾼으로 부름 받은 직분자들 사이에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바로 복음의 깊은 ‘각인’, ‘뿌리’, ‘채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갖고 들었던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각종 예언, 각종 은사에 대하여 설

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은사를 설명하던 중에 은사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딱 펼쳐버린다. 우리 램넛트들과 성도와 직분자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 하면 ‘참 헌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다. 바로 이 사랑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다. 가족간의 사랑? 이게 ‘조건’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다.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에도 역시 뭐가 있는가? ‘조건’이 있다. 심지어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 사랑은 우리를 조건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조건이 없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직분자들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든 포커스(Focus)가 어디로 맞춰야 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결론이 나와 된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 아가페 사랑에 모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런 사랑인지 아닌지를 한 번 점검 해 봐야 한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먼저 읽겠다. 같이 읽겠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한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오래 참는가?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해 버리지 않는가?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을 만큼 참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산이 폭발 하듯이 폭발해 버린다. 제가 아버지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또 여러분, 온유하신가?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시는가? 나름대로 그 너그러움과 온유함이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역시 무너진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거라 한다. 이 ‘시기’는 바로 뭐냐 하면 ‘경쟁’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쟁이 시기를 일으킨다. 그 시기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킨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시기’와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심지어는 자랑하고 싶어한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 시키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다. 여러분, 이 무스탕(Mustang)이라고 하는 야생말을 알지 않는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른다. 이 야생의 말은 힘 밖에 없다. 달리면 한도 끝도 없이 달린다. 그런데 그 말로는 경주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려면 그 말을 훈련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말에게 뭘 물리냐 하면 재갈이라고 물린다. 이... 자기의 힘을 절제 할 수 있는게 바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자랑’에는 ‘절제’라는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 밖에 몰라!’ 이게 다 ‘교만’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에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교만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도대체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없는 것들이다. 자 5절을 또 같이 한 번 읽어보겠다. 같이 읽겠다.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한다. 여러분...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쓸데 없이 자기를 막 과시하고 뽐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기 사나울 정도로 막... 마구잡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사실은 다 원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찾아 찾는다. 이 “성내지 아니한다” 한다. 사랑은, 이 ‘성’이 언제 나는지 아시는가? 서로 막... 서로 다투다가... 어떤 토픽(Topic)을 가지고 얘기 하다가... 거기에서 화가 확 나는거다. 우리가 서로 막~ 부부간에도 얘기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한다. 대화가 되는가? 침착하게 A, B, C, D 하면서 서로간에 대화가 되는가? 저희 가정은 대화가 안 된다. 벌써 화부터 난다. 서로 아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저에게는 이 ‘화’가...

늘~ 치밀어 올려 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사랑은 악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 하는 사랑이 너무 다르다. 또 6절을 또 함께 읽어 보겠다.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한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 사도요한은 가이오 집안의 가족들을 보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고 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다. 또 7절을 한 번 읽어 보겠다.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것은 뭐... '악한 것', '선한 것', 전부 짝퐁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하고' '합당한 것'에 대하여 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 수 있는가? 누구나 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에 뭘 갖고 있나 하면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을 보며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한 그 말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사건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옆에서 조언하거나 말을 할 때는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말 하는게 사랑이 아니다.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판단 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참 된 사랑이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보겠다. 자, 이제 정말 왜 여러분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왜 사랑이 영원한 것인지를 오늘 사도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 자, 8절 한 번 읽어 보겠다. **"8. 사랑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고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식도 없어진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이런 모든 은사가 어느날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뭐... '봉사', '헌신', '수고'가 어느날 그것이 은사로 주어 졌는데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게 다 필요 없을 때가 온다. 9절을 보겠다. 같이 읽어 보겠다.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한 절을 더 보겠다.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말한다. 여기로 말하면 부족한... "부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말을 네 번이나 한다. 이 "부분적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질 않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지식'도 '예언'도 있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한 것을 돕는 수단이 은사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씀사역... 또 여러분이 하는 수고... 다 그게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동안에만 이 은사가 필요하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부분적인 것은 다 끝난다."**라고 한다. 완전한 것은 뭐겠는가?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은 벗어지게 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도왔던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또 이것을 설명해 준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 수고와 헌신은 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구나.' 한 번 여쭙보겠다. 여러분, 여기 각종 은사들, 직분들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 제직들이 있다. 그리고 남을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은사와 직분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는가? 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일단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란 사실. 목적은 하나님. '교회의 연합'과 '하나 됨'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완전하지가 않다. 또 불완전하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예가 아주

잘 나와있는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은사와 우리의 사역을 설명 해주는 예이다. 자 우리 한 번 11절과 12절을 보겠다.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자,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어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우리가 차는가? 풍과 오줌을 스스로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돕기 위하여 뭐냐 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다. 열 살이 됐다. 스무 살이 됐다. 근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바로 은사와 직분이다. 성장하면 그런 은사와 직분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또 어린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라. 너무 어리고 자기적이고 이기적이다. 근데 큰 아이...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 이러면서 달라고 구한다면 그 아이는 너무나 연약한 아이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아이라고 한다. 우리가 성장한 후에는 그런 직분과 은사가 사실은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다. '거울'과 '실재'는 다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 하셨다. 그게 바로 거울이다. 바로 창조 된 세상의 창조,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근데 나무를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우리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밖에 모른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만 거울이 필요하다. 그게 직분과 은사라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제직들이 직분을 받았다. 많은 은사들이 있다. 심지어는 말씀사역도 말씀사역을 위한 많은 수단들도 전부 뭐냐?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거울 없이 직접 볼 때가 있다. 직접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 그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하게 바로 은사이다. 근데 그 많은 은사들이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인데 왜 주셨을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모든 은사에 있어서 항상 간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가 목적하는게 하나가 있다. 바로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우리의 '사랑'을 위한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자 한 번 오늘 잘 들어보시라. 그래서 '사랑'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은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맞추어져 있다. 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은 세 가지에 있어야 된다.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을 통해 뭐가 살아나는가? '믿음'이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들음에서 온다. 이 '들음'은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이 믿음은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이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게 소망이니깐. 근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끌고가는게 바로 뭐냐? 그게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겼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준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을 끝까지

끌고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됐다. 소망이 바로... 소망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있다. 근데 사랑과 다른 것이 있다.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데 꼭 필요하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위해 주셨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이걸 보고 '아가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리려면 이 사랑이 필요하다. 자,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연합함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랑은 이 땅에도 필요하지만은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갔을 때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땅에서도 사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은 지속 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제일'이라는 말은 모든 점에서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언제까지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사랑'이란 말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그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해야 될 사랑이... 은혜가... 기도가 뭐겠는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은사가 뭐겠는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많은 은사가 있다. 다 좋은 것이다. 다 유익하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가장 Bottom,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사이기 이전에 교사에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장로라는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장로 밑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 목사인 제게도 사역을 맡겼지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바로... 세상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이란 것이 가득 차야 된다.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같다"** 그런다. 말 잘한다.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모른다. 천사와 통할 정도로 말을 잘 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구리와 쟁과리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단다. 또 하나... 내가 예언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결국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하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 램넛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 입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냐? '십자가'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란 말이다. 내가 크니 내가 크니... 어 너는 말을 잘 하니 까... 너는 뭐 있으니까... 싸우지 말란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다. 제가 그래서 볼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거다. 다투는 사람에게는... '하~ 주여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말도 못하고 아무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분에게는 자기 보다는 남을 품고 사랑하는 그게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오늘... 정말 오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

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늘 발견하시라.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다. 여러분, '세 가지 흐름'을 꼭 타시라. 모든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꼭 따라가시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고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설명 된다.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다. 또 하나, 여러분이 또 흐름을 타셔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아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사랑을 받은 만큼 세 가지 흐름 가운데 따라가게 되어 있다. '구원 받음에 대한 감사'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이 사랑이 결국 세상을 살린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흐름을...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237개국의 나라'를 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 받는 사람이 맞다면... 이제 우리가 '237개국의 나라'를 품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인이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세계복음화'를 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 이 응남 목사 부 목사 : 이 응남 목사 연 락 처 : (832)858-4885, (281)815-5361 자료작성 :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